

## 윤한솔 연출가



## 공옥진 춤 새롭게



“왜 전통은 재미없고 따분하며, 즐겁지 않을까?”

파격적인 실험으로 주목받는 연출가 윤한솔은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전작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테모 버전>(2014)에서 구전심수(口傳心授: 악보 없이 일대일로 전수되는 방식)로 계승되는 판소리를 소재로 해 공연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공연할 때 판소리를 좋아했던 배우들도 공연이 끝나면 듣지 않았다”며 삶과 동떨어진 전통예술의 명맥이 언젠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전통에 대한 아쉬움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에 오른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에서 '춤'으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키네트(동작 인식 센서)를 활용한 게임으로 공옥진(1931~2012)의 춤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수많은 무용 중에서 왜 공옥진의 춤을 선택했을까? 이에 대해 그는 “공연에 앞서 4개월 동안 사전 조사를 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

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전수자가 없어 사라져버린 공옥진도 한국무용에서는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의 공연은 어떤 면에서는 '한때는 정설이었을 전통'에 반한다. 연출이든 스토리 전개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정설에 반기를 드는 도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배경음악을 없애 숨실 틈을 주지 않거나, 공옥진의 일대기를 꿰뚫어야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부연 설명 없이 대사로만 녹여냈다. 이런 그의 연출은 사라져가는 전통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윤한솔은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인극영화학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연극연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해화동(번지) 5기를 거쳐 현재는 그린피그 상임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극원 교수로 있다. 제2회 두산연경예술상(2011), 제34회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젊은 인극인상(2013), 제18회 김성일인극상(2016)을 받았다.